

8월 취업자 5개월 만에 반등...제조·건설업 부진은 지속

통계청, '2023 8월 고용동향' 발표
폭우 등 일시 영향에 취업자 증가폭 반등
제조업 6.9만명 ↓ 8개월 연속 내림세
기재부 "동향 점검·양질 일자리 창출"

지난달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27만명 가량 늘면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둔화된 취업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다만 제조업 취업자가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주요 산업의 부진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6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8000명(0.9%) 늘었다.

증가 규모는 지난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6월 33만3000명, 7월 21만1000명으로 4개월 연속 둔화했다. 특히 지난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지난 8월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5개월 만에 반등했으나 7월에 이어 20만명대 증가에

머물렀다. 서울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다가 회복되면서 8월에 반등했다"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때문에 반등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0만4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3만6000명 감소한 것이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7만3000명, 6만4000명 늘었지만 20대 9만1000명, 40대 6만9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부터 1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0만3000명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고용률은 47.0%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내려갔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0.1%) 감소해 2개월 연속 뒷걸음질쳤다.

여자는 1260만5000명으로 28만1000명(2.3%)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8000명·4.9%), 숙박 및 음식점업(12만1000명·5.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만7000명·4.4%)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6만9000명·-2.1%), 제조업(-6만9000명·-1.5%), 농림어업(-1만9000명·-1.1%), 건설업(-1000명·0.0%) 등에서 줄었다. 제조업은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주 국장은 "분야별로 제조업 부분의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번 달에는 좀 감소 폭이 좀 더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은 부동산 경기 등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문제들로 수요 부분도 건설 쪽에서 조금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7월 집중호우 때문에 더 많이 감소했다가 이번에 감소 폭이 조금 줄었다"고 말했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2.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9000명(-12.9%),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0.3%)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4.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0.8%)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5000명(-5.6%)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368만2000명으로 131만3000명(10.6%)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443만9000명으로 100만명(-6.5%)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p 오른 69.6%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57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1000명(-6.7%) 감소했다. 이는 1999년 6월 구직기간을 1주에서 4주로 변경한 이래 모든 월을 통틀어 역대 최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0%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이는 1999년 6월 구직기간 기준변경 이래 8월 기준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0.5%) 감소하며 30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32만2000명이다. 30대(3만8000명·15.1%), 20대(2만8000명·8.0%)를 중심으로 8만3000명(3.7%) 늘었다.

서울주 국장은 "전망에 플러스(+)가 지속된 부분이 돌봄수요 있던 보건복지, 대외활동과 외부활동 관련 숙박음식업이고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게 정보통신 전문 관련인 반면 제조나 도매 부분은 마이너스(-) 상황"이라며 "취업자 증가에 증가요인과 감소요인 모두 있는 상황으로 작년 기저효과도 기본적으로 좀 두터워서 하반기는 종합적으로 뭐가 더 끌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8월 10일) 등에 따른 중국인 방문 관광객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 전망되나, 경기회복 조짐에도 제조업·건설업 고용부진 지속에 대해서는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용일기자

'겨울왕국' 여행가자...클룩, 상품 출시



글로벌 여행·레저 이커머스 플랫폼 클룩은 홍콩 디즈니랜드에 새롭게 개장하는 겨울왕국 테마랜드 '월드 오브 프로즌' 단독 상품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11월20일 문을 여는 '겨울왕국: 월드 오브 프로즌'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시리즈를 주제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테마랜드다. 클룩은 공식 개장 전인 11월 4일에 '월드 오브 프로즌'을 미리 즐길 수 있는

프리미어 패키지 상품 '프리스트 룩 및 아렌델'을 준비했다. 해당 패키지에는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 스탠다드 룸 1박 ▲홍콩 디즈니랜드 1일 일반 입장권 2매 ▲겨울왕국: 월드 오브 프로즌 2인 입장용 손목 밴드 ▲디즈니 프리미어 액세스 - 8개 놀이기구 어트랙션 입장 패스 2매 등이 포함돼 있다. 정식 개장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입장해 한적하게 '겨울왕국: 월드 오브 프로즌' 어트랙션을 즐길 수 있는 조기 입장 티켓을 클룩 단독으로 판매한다. 이 상품에는 홍콩 디즈니랜드 1일 입장권도 포함돼 있다.

홍콩 디즈니랜드와 '겨울왕국: 월드 오브 프로즌' 관련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클룩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슬비기자

기아, 내달 'EV데이' 개최...EV5 글로벌 진출 '본격화'

136형 이어 118형 'LG 매그니트' 신제품 선보



기아가 다음달 'EV(전기차)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새로운 전기차를 소개하고, 전기차 전략을 적극 설명하려는 자리다. 특히 보급형 전기차 모델인 EV5의 국내외 출시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EV 데이 행사에서 준중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인 EV5를 공개할 예정이다. 기아가 지난달 중국 청두모토쇼에서 처음 공개한 모델로, 기아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중국에서 처음 출시한 최초 차량이다.

기아는 이미 중국에서 하이난성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EV5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판매 가격은 15만9800위안(약 2900만원)부터 22만9800위안(약 4175만원)까지다. 중국 BYD 자회사 핀드림에너지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EV5는 길이가 약 4.6m, 휠베이스(축간 거리)는 약 2.7m로 기아의 대표 SUV 모델인 스포티지와 비슷한 크기다. 경쟁 모델인 폭스바겐의 ID.4보다는 약간 길고, 테슬라의 모델Y보다는 약 125mm 정도 짧은 수준이다.

기아는 당초 EV5를 중국에서만 출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부터 한국은 물론 동남아,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국내 출시 모델은 LFP 배터리 대신 삼원계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해 판매 가격도 5000만원 이상으로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7000만원이 넘는 EV6와 비교하면 훨씬 저렴해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EV5는 최근 국내에서도 실차가 포착됐다. 기아가 국내 출시를 위해 공공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조금이 줄고 충전 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다"며 "EV5가 중국에서처럼 저렴한 가격에 출시돼 가성비 모델을 자리를 잡는다면 국내에서도 많은 수요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전셋값 상승세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인천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 전환하며 수도권 전체 전셋값이 반등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전세가격은 0.02% 올라 2022년 5월(0.03%)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지난 7월 보합(0.00%)을 기록했던 서울은 전월과 비교해 0.07% 올랐고, 경기도는 하락세를 벗어나 0.01%를 기록했다. 인천은 2021년 12월(0.19%) 이후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중구와 강남구, 광진구, 서대문구, 송파구 등에서 전월 대비 전셋값이 올랐고, 강남구 개포동과 일원동 및 송파구 가락동, 잠실동 등은 리모델링 추진 및 정비사업 유망 단지 위주로 가격이 반등했다.

경기도는 의왕시와 용인시, 안산시 등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인천은 서구 청라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올해 1~7월까지 수도권 전세 거래 누계 건수는 9만44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8만8148건) 보다 6265건 늘었다. 다만, 7월 한 달간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3만4394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매물 소진 이후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매물 공급량이 줄면서 거래 움직임이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서울은 가격 회복 계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가을 이사 수요까지 더해져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경기와 인천도 서울 전셋값에 따라 움직임 가능성이 크지만, 여

전히 가격 혼조세가 있고 올해 4분기에 연내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어 지역별 가격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상승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568만 원으로 집계됐다. 6월 6억443만원에서 7월 6억494만원으로 오른 뒤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실제 주요 아파트 전셋값이 오름세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전용면적 59㎡)의 올해 초 평균 전셋값이 6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8억5000만원에서 9억 원 선으로 올라섰다. 또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역시 지난해 말 6억9000만원 선에서 최근에 9억에서 10억원 선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 여파 등으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찾는 임대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집주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 규제 완화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의 대출 한도가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시장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고기 대신 이것 넣은 만두"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채식교자' 출시

육류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재료로 맛을 낸 것이 특징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그리팅'의 신제품 '그리팅 채식교자'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리팅 채식교자는 현대그린푸드 내 그리팅 전담 연구조직 '그리팅 Lab'의 연구원들이 대체육 전문 기업 '지구인컴퍼니'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육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재료로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그리팅 채식교자에 사용된 대체육은 콩에서 추출한 '조직식물단백(TVP)' 2종을 혼합해 식감을 살렸고, 국산 마늘·생강·부추·양파 등 7가지 채소를 사용해 콩고기 특유의 풋내를 최소화했다.

만두피의 경우, 반죽의 기포를 제거해 탄성을 극대화하는 '진공 배합' 과정을 통해 조리 후에도 쫄깃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영하 35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해 조리

후에도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그리팅 채식교자는 아스파탐, D-소비톨액, 아세틸펄판칼륨, 수용성 안나토 등 감미료와 착색료를 첨가하지 않았으며,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0g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제품 판매처는 현대그린푸드 공식 온라인몰 '그리팅몰'과 전국 현대백화점 식품관이다. 향후 단체급식·식자재 등 B2B(기업간 거래) 고객사에도 납품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은 1봉(945g) 기준 9900원이다.

이번 신제품 출시에 앞서 현대그린푸드는 지난해 7월 채식주의자를 위한 B2B 전용 대체육 제품 '베지 미트볼'과 '베지 함박스테이크'를 선보인 바 있다. 두 제품의 올해 월 평균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각각 557%, 140%로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비건·키즈·고령친화 등 다양한 건강식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객의 식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욱기자